미-이란 휴전 협상안 제시 소식에 증시 상승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종전 협상 전개 주시하며 증시 상승, 달러는 여전한 강세

- 미 증시는 DOW +0.66%, S&P500 +0.54%, NASDAQ +0.77% 상승. 소재, 헬스케어 강세, 에너지 약세
- 전거래일 장마감후 미·이스라엘 연합이 이란에 종전협상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유가를 끌어내리며 투자심리 개선. 다만 여전한 불확실성에 WTI -1%, 브렌트유 강보합에 그침
- 유가 하락 영향 국채금리 하락 10Y -5.5bp, 2Y -4.0bp. 반면, 달러인덱스 99.5 로 달러강세 양상은 지속. 금·은 각 2%대 상승

종전의지 vs 양동작전, 종전 합의 압박하는 미국

- 미국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핵프로그램 포기 등 15 개 요구사항을 이란 측에 전달, 주말중 협상 추진 의사. 반면, 이란은 침략·암살 중단, 호르무즈 해협 주권 보장 등 5 개 조건을 역제안
- 백악관 입장은 이란의 패배 인정을 받아내며 종전하는 것으로, 협상을 제안하는 한편 군사 압력 또한 지속. 공수부대 1 천명도 중동 추가 투입 예정, 이란 부셰르 원전 및 시라즈 공군기지 피격. 러시아는 부셰르 파견 자국인력 1/3 철수 조치
- 한편,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 및 미-중 정상회담 일정 5 월 14~15 일로 연기. AP 통신은 백악관 측이 트럼프 방중 이전 이란전쟁 종결에 대한 낙관적 어조를 비쳤다 보도

에너지 충격 지속 기간에 주목하는 중앙은행

-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정책 결정 전에 충격의 성격과 규모, 지속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발언.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단기충격인 경우 무시하고, 장기화시 금리인상 고려하겠다고 언급
- 2 월 수입물가 MoM +1.3% 전월·예상치 상회, 2022 년 3 월 이후 최고치. 2 월 수출물가 또한 MoM +1.5% 전월·예상치 상회

특징주: 기술주 강세 한편 터보퀀트 쇼크로 메모리주는 약세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MU	마이크론	-3.4%	구글리서치가 LLM의 메모리 사용량을 6배 이상 절감하는 첨단 양자화 알고리즘 '터보퀀트'를 공개, 향후 HBM 및 스토리지 수요 둔화 우려 확산. 샌디스크(-3.5%) 등 메모리주 동반 하락
AMD	AMD	+7.3%	PC 및 서버용 CPU 시장의 공급 부족 지속되는 가운데, AMD와 인텔(+7.1%)이 고객사들에 전 시리즈의 CPU 가격 인상 계획을 통보했다는 니케이아시아 보도에 주가 강세
ARM	ARM	+16.4%	전일 AGI CPU 자체칩 공개 및 5년 내 매출을 5배 성장시키겠다는 공격적인 가이던스에 주가는 1년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. 메타, OpenAI, SK텔레콤 등에서 이미 AGI CPU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,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물량 공급 이뤄질 예정. 레이먼드제임스는 투자의견 '중립'→'매수'로 상향 조정
JBLU	제트블루	+13.4%	그간 만성적인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지속되었으나, 유나이티드항공 등 대형 항공사로의 매각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
RKLB	로켓랩	+10.3%	스페이스X가 조만간 IPO를 추진할 수 있다는 보도에 우주테마 강세. 특히 동사는 상장사 중 가장 직접적인 Peer로 부각되며 주가 강세. 한편 최근 NASA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일시 중단 여파로 우주 항공주들이 부진했으나, 50년 만의 유인 달 비행인 아르테미스 2호 미션(4/1 예정)에 대한 기대감도 섹터 센티 회복에 기여